

### 뜨거운 록 무대...3,500여 관객 스트레스 날렸다



지난달 30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YB윤도현 밴드 공연은 관객과 가수들이 하나된 열광의 무대였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YB 윤도현 밴드 광주 공연 성황

지난달 29일 광주문화회관 무대에 오른 YB 윤도현 밴드(이하 YB 밴드)가 첫 곡 '이 땅에 살기 위하여'를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객석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후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공연 내내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야광봉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

며 스트레스를 발산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YB밴드 공연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차례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이번 공연에는 3천500여명의 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연령층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40~50대

관객들이 록음악에 몸을 흔들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무대에 선 YB밴드 윤도현은 특히 광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 환호를 받았다. 윤도현은 "광주는 언제나 오고 싶은 도시고, 우리 음악의 지향점이기도 하다"며 "우리 역사에서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말했다.

YB밴드는 이날 '너를 보내고', '사랑 two',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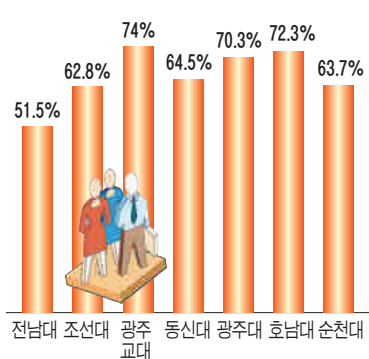
인기를 모았던 발라드와 '커피 한잔', '행진' 등을 열창했으며 '깃발', '뚝 투 뚝' 등 내년 1월 발매 예정인 8집 앨범 수록곡과 뮤직 비디오를 처음 선보였다. 특히 최근 KBS 음악프로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그 만 두고 음악인으로 복귀한 윤도현은 전자기타, 하모니카, 키보드 등을 직접 연주했으며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전남 대학 간 취업률 큰 격차

최대 22.5%p 차...학생 3~15% 중도 탈락

오늘부터 전국 1만1,697개 학교 정보 공개

2008년 광주·전남 대학 취업률



광주·전남권 주요 대학의 취업률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정보 공시제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전남대 등 광주지역 주요 대학 중요 공시정보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는 51.5%인 반면 광주교육대는 74%로 조사됐다.

또 ▲조선대는 62.8% ▲호남대 72.3% ▲광주대 70.3% ▲동신대 64.5% ▲순천대 63.7%로 나타나는 등 학교별로 최대 22.5%p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취업률은 정규 및 비정규, 대학원 진학, 군복무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대학별 취업률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광주교대 35.6명 ▲호남대 33.2명 ▲조선대 32.1명 ▲순천대 30.5명 ▲동신대 30명 ▲광주대 24.3명 ▲전남대 19.2명 등이었다.

중도 탈락률은 특수 목적대학인 광주교대가 0.9%로 1% 미만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적게는 3~8%, 많게는 15%까지 나타났다.

한편,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14개교 등이다.

대학이 공개할 항목은 ▲대입전형 계획 ▲취업률 ▲학생충원율 ▲전임 교수 확보율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건강보험 요양급여 2011년부터 차등지급

앞으로는 치료를 잘하는 대형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더 받고,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대형병원은 급여비가 깎이게 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주에 따르면 전국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질환 치료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 우수병원에는 보험 급여비 인센티브(Incentive·가산)를, 열등병원에는 디인센티브(Disincentive·감액)를 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감지급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병원을 나누며, 광주·전남지역에서 평가 대상병원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곳뿐이다. /인현주기자 ahj@

### 전남지역 교사 10명 중 4명

##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전남지역 교사 10명 중 4명 이상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사 1만4천433명의 관내 거주 여부를 파악한 결과 38.1%인 5천501명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초등교사는 32.3%인 2천38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4.3%와 44.1%인 1천795명과 1천322명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이 넘는 '원거리' 출퇴근

교사도 950여명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광주권인 나주와 담양, 곡성, 화순지역 교사들의 출퇴근 비율이 78.4%에 이른다.

특히 곡성지역 고교 교사는 47명 모두가 광주서 출퇴근하는 등 광주권 고교 교사 91.5%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외 거주가 어려운 완도와 진도, 신안 등 섬 지역의 출퇴근 교사 비율은 10% 이하로 낮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는 '사생활'의 성격이 강해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최해호기자 lion@

### 지역 IT기반 다지고 인력 양성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개원 1주년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유창종)가 1일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해온 전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구축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 1년동안 지역 IT기반강화와 인력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특히 지난 7월 국제인증기구인 BSI

(영국표준협회)로부터 'ISO 20000' 인증을 획득, 체계적인 IT 서비스 운영과 관리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립대와 광주대 등 지역 대학과 관·학 협력 협정을 맺어 IT 인력 양성에도 기여했으며 지역 대학생과 함께 하는 IT 현장 실습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센터측은 400여명의 신규 고용을 비롯해 IBM, HP 등 벤더사의 광주지역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3천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 지역 IT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250억원), 센터 신축과 위탁운영에 따른 2천300여원의 경제적 소득 창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유 센터장은 "1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IT 관련 산학 협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1일 대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를 갖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서비스 교육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지난 6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교육'을 마감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 '공기업의 마케팅 전략' '고객만족 극대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현장실정에 맞게 반복해 실시됐다. /정후식기자 who@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점 (062) 227-9970

**한라산 등반 초특가 세일!!!**

**1박2일 79,000원**

**2박3일 99,000원**

무선: 제주(주)원-월드컴퍼니      (편성: 제주도 고속철리

**리첸 RITCHEN**

**OPEN**

평주직영전시장